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1호 [루게 제25059호] 주제104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
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인민사랑속에
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신
라선땅에서 사회주의만세
소리, 로동당만세 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
건 일흔돐을 맞으며 사랑
하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머나먼 하
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기적의 선경마을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으
시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
지, 김양진동지, 오수용동
지, 조용원동지, 김여정동
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박영식동지, 강표영동지, 김용진동지를
비롯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 9월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큰물
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당을 따라 전
체 군대와 인민이 사선의 고비도, 험난
한 진펄길도 함께 헤쳐온것처럼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라선시피해복구전투

에서도 세상에 없는 군민대단결의 위력
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하시면서 피해복
구전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
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
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일떠서고 청

계동, 유현동, 판곡동지구 등 여러곳에
500여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
변풍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였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가 승리적으로 결
속되였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TV와 의복류, 경질유리그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이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시였으며 오늘
은 새집들이를 앞둔 백학동을 찾으시어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욕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
과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데 대한 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
이 많았다고,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
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어
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가 백학동에 새로 일떠세운
마을이 불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살림집
지붕과 외장재색깔도 보기 좋고 주택구역
의 도로와 울벽, 배수로공사도 잘했다고,
터밭도 조성해주고 맬감까지 마련해놓았
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